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팬포머** 선풍기 기능 업그레이드 장비

선풍기의 2단 변신 ... 서큘레이터+공기청정기

여름 더위가 본격화됐다. 어느 집이나 한 두 개씩 있는 선풍기를 꺼내보지만 성능은 만족스럽지 않다. '팬포머'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품이다. 선풍기 날개 앞에 붙여 있는 안전망을 교체해 주변 바람의 거리와 세기가 두 배로 업그레이드된다. 그 사이에 에어필터를 끼우면 공기청정기로 작동한다. 이른바 우리 집 선풍기의 2단 변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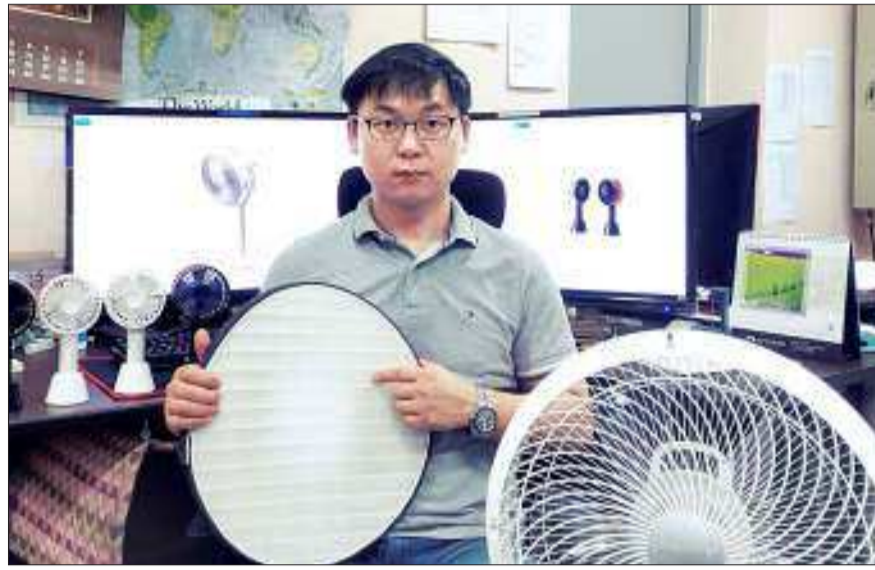
◆**선풍기 성능 두 배 업그레이드**
김동일 팬포머 대표(41)가 선풍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키트(장치)를 처음 구상한 것은 2015년 여름이었다. 당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에어서큘레이터를 보고 부류로 타격을 타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대표는 "서큘레이터가 10만원 이상 고가에 팔리고 있지만 선풍기 앞면에 안전망만 바꾸면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015년 가을 연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제트엔진 분사노즐 원리를 응용하기로 했다. 선풍기 전면의 나선형 그림이 바람을 회전시켜 저항을 줄여주는 선풍기 전면 안전망을 개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인증에 따르면 이 제품을 장착한 선풍기는 바람을 11m까지 보내 일반 선풍기(6m)의 두 배에 육박했다. 3m 거리에서 측정된 풍속은 초속 1.9m로, 일반 선풍기(초속 1.0m)의 두 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선풍기(fan)를 변신(transform)시키는 제품 '팬포머(fanformer)'는 이렇게 탄생했다. 가격은 1만8800원으로, 기존 서큘레이터 대비 5분의 1 수준. 2016년 여름 팬



김동일 팬포머 대표가 선풍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팬포머 키트'를 설명하고 있다. **팬포머**

설립	2013년
위치	전북 전주시 팔복동
주요 제품	팬포머, 팬포머 에어클린
특징	선풍기에 장착해 성능 업그레이드
매출	7억원(2018년)

바람으로 재탄생시켜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 말 일체형 선풍기를 개발해 내년 여름에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시장에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열대성 기후로 선풍기가 필수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진출했고 베트남과 태국에서 현지 생산도 검토 중이다. 앞서 팬포머는 일본 흡수필사 '숨재팬'의 모회사 오코론마케팅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기청정기와 일체형 선풍기의 일본 판매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타고난 발명가다. 화학 시절 과학과 기술 등을 좋아하며 과학경진대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던 발명가 지망생이었다. 김 대표의 장기 목표는 팬포머를 한국의 대표적인 소형 가전업체로 키우는 것이다. 김 대표는 "다이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며 "대기업들이 떠나가고 중국산 제품이 넘쳐나는 한국 소형 가전업체에서 아이디어 특허를 기반으로 한 혁신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sjlee@hankyung.com)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선풍기 앞면 안전망 교체하면 바람 세기·거리 2배 강해져

날개 앞에 필터 끼워 공기청정기로 "청정기·서큘레이터 일체형 출시"

팬포머는 입소문을 타고 흡수필과 인터넷 쇼핑을 통해 여름 두 달 동안 5000대가량 팔렸고 매출은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소음을 줄이는 등 성능을 개선한 제품으로 지난해 매출은 7억원까지 늘었다.

◆**일체형으로 진화 중인 팬포머**
팬포머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 대표는 최근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착안했다. 지난해 팬포머와 선풍기 날개 사이에 끼우는 미세먼지 필터 '팬포머

에어클린'을 내놔다. 팬포머를 장착한 선풍기를 여름에 사용한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봄과 겨울에는 공기청정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에어클린을 장착한 선풍기를 돌린 뒤 미세먼지 농도는 20분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는 30분 만에 최고점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KTR을 통해 인증 받았다. 필터 교체 주기는 6개월이다.

올여름을 겨냥해 휴대용 선풍기에 팬포머 기능을 적용한 '팬포머 핸드도' 출시했다. 기존 제품 대비 풍속이 38% 증가했다. 바람은 3m 이상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제품까지 포함해 팬포머는 올해 매출 1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공기청정기와 고상능 선풍기를 결합한 융합 상품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팬포머에 에어클린을 장착하면 공기청정기로만 사용된다. 이에 날개 뒤에 있는 안전망에 필터를 장착하고 이를 통해 걸러진 공기를 팬포머를 통해 강력한

부산서 제로페이 이용하면 7% 캐시백

9월30일까지 석달 간 진행

휴가철에 부산서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7%를 돌려주는 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9월 30일 석 달간 부산에서 제로페이를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이용액의 7%를 돌려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제로페이에 가맹한 결제 앱(응용프로그램)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등록한 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결제일의 다음날 말일에 현금 또는 포인트로 결제 금액의 7%를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가 가능한 앱은 씬뱅크(부산은행), 포스트페이(우정사업본부), 리브

(국민은행), 투유뱅크(경남은행), NH엔캐시(농협), 수협 파트너스뱅크(수협), 네이비페이(네이버), 모바일 티머니(티머니), 머니트리(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9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에 있는 규약(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연 매출 8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이용 수수료가 없고,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 업체는 0.5%가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제로페이가 많이 알려져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한국 대표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중기부, 8월16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장기간 건설하게 운영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꾸준한 성장에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명문장수기업은 바람직한 중소기업 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12개 기업이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유지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조세 납부를 통해 사회에 경제적인 기여를 한 기업이어야 한다.

법규 준수나 사회공헌, 혁신 역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심사를 거쳐 올해 말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중소기업하나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8월 16일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맨 왼쪽)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두 번째)이 2019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서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글로벌 정책 변화 제때 파악해 K-바이오 경쟁력 강화해야"

식약처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靑 "혁신 바이오 생태계 지원"

국내의 바이오기업 관계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서울에서 최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현황과 해외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지난 24일부터 5일간 열린 '2019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에서다.

식약처의 바이오안전평가 연 이번 행사에는 36개국에서 모인 5200여 명의 정부·학계·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콘퍼런스에선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및 1대 1 미팅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해외 규제당국자와 만나 수출허가국의 규제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이번 만남에선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 규제당국자와 국내 기업 간 34건의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CAR-T 항원 수용체 T세포(CAR-T)를 활용한 항암제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도 공유했다.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말콤 브레너 미국 베일러 의대 교수는 기초연설에서 CAR-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암의 치료 전략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김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기**

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사전에 규제담당자 한 번 만나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규제당국자 미팅의 효용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수준과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과 최신 기술 습득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행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반도체, 미래 자동차와 함께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R&D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벤처부터 대기업까지 각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 R&D 규모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은 "향후 5조원 이상을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혁신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m@hankyung.com

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제3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배정 인원은 7080명이다. 정부의 2019년도 제조업 쿼터(2만8880+α)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배정은 오는 10월 이뤄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내방,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14일 경과)이 되어야 한다.

합격 업체는 고용부에서 7월 26일 확정 발표한다.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8월 1-6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지 않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 수급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The 4th SERVICE WEEK
GOOD SERVICE, BETTER QUALITY

한국표준협회는 7월 첫째 주를 '서비스워크(Service Week)'로 정하여 서비스경영 우수기업 발굴 및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 2(화)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
롯데호텔(서울)

7. 3(수)
산·학 서비스 연합
학술대회
중앙대학교

7. 4(목)
KS-SQI 상반기
인증수여식
롯데호텔(서울)

7. 5(금)
한국서비스대상
사상식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7. 5(금)
서비스의 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주최 한국표준협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서비스경영학회 | 한국품질경영학회 | 한국호텔리조트학회 | 한국호텔관광학회 | 서비스마케팅학회 | 한국외식경영학회 | 한국IT서비스학회 | 한국기업교육학회 | 한국디자인경영학회 | 한국공유경제학회 | 한국서비스모범

주요 참여 기업 SK Telecom | SK broadband | SK telink | 신한은행 | 신한생명 | 신한카드 | kt | kt is | kt cs | GS 리테일 | 삼성생명 | 삼성증권 | 삼성화재 | 삼성카드 | EVERLAND RESORT | DB손해보험 | 롯데호텔 | 롯데쇼핑 | KB국민카드